

‘백두산 화산’ 울겨울 스크린서 깨어난다

영화 ‘백두산’ 12월 개봉

백두산 화산 폭발 막으려 사투 벌이는 사람들 이야기 재난 블록버스터 이병헌 등 초호화 캐스팅

약 1000년간 잠들어있던 백두산 화산이 울겨울 스크린에서 깨어난다. 다음 달 개봉하는 영화 ‘백두산’을 통해서다.

남북한을 집어삼킬 백두산의 마지막 화산 폭발을 막으려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재난 블록버스터다. ‘신과함께’ 시리즈를 제작한 텍스터 스튜디오 신작으로, 이병헌·하정우·마동석·전혜진·배수지 등 초호화 출연진으로 화제를 모았다.

19일 CGV압구정에서 열린 ‘백두산’ 제작보고회에서 배우들과 제작진이 참석해 영화 소개와 촬영 과정 뒷이야기를 들려줬다.

지난해 1월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이후 약 2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이병헌은 북한 무력부 소속으로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가 남한의 비밀 작전에 투입된 리준평 역을 맡았다. 액션은 물론 데뷔 이래 처음으로 북한 사투리를 쓰고, 중국어와 러시아어도 연기했다.

이병헌은 “재난 영화에 처음 도전했다”면서 “극 전반에 스틸과 긴장감이 흘러서 나리움을 읽을 때 단숨에 읽을 수 있었다. 특히 하정우와 함께한 버디 무비 형식의 혼란함도 있어 기대가 컸다”고 말했다.

영화 ‘터널’ ‘더 테러 라이브’에 이어 또다시 재난 영화에 출연한 하정우는 예 가지 않게 작전을 이끌게 된 특전사 대위 조인장을 연기했다.

그는 “재난에 빠진 캐릭터들이 단선적



19일 열린 영화 ‘백두산’ 제작보고회에서 배우 이병헌(왼쪽부터), 수지, 전혜진, 하정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지 않아서 좋았다. 재난 속에서도 유머가 있고, 인물들의 솔직함이 담겨 새로운 재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난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리준평과 조인장의 호흡이 큰 매력이라고 생각했다”며 관련 포인트를 짚었다.

이병헌과 하정우는 처음으로 한 작품에 출연했지만, 스크린에서도 ‘잘먹 호흡’을 보여줬다. 이병헌은 하정우에 대해 “평범한 장면을 유머를 섞어 풍요롭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며 “하정우의 과감한 행동력과 성격에 끌리고 싶다”고 치켜세웠다.

하정우는 이병헌에 대해 “비극과 희극 모두를 잘 연기하는 배우로, 형이 연기하고 선택한 작품이 그냥 마냥 좋았다”고 화답했다.

전혜진은 화산 폭발을 막으려 새로운 작전을 제안하는, 냉철한 판단력과 카리스마를 지닌 민정수석 전영경 역을 맡았

다. 그는 “확고한 소신과 리더십뿐만 아니라 유연함을 갖춘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드라마 ‘배가본드’에서 국정원 요원으로 활약한 배수지는 홀로 서울에 남아 거대한 재난에 맞서는 최정영 역을 맡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배수지는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이라 걱정을 많이 했지만, 실제처럼 꾸민 촬영 현장 덕분에 몰입해서 연기할 수 있었다”고 떠올렸다.

백두산 화산 폭발 전문가인 지질학 교수 역을 맡은 마동석은 마블 영화 ‘이터널스’ 촬영으로 이날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백두산’은 ‘천하장사 마돈나’ ‘김씨 표류기’ 등을 연출한 이해준 감독과 ‘신과함께-죄와 벌’ ‘PMC: 더 벙커’ 촬영을 맡은 김병서 감독이 공동으로 연출했다.

이해준 감독은 “7·8년 전 영화를 처음 구상했을 때 몇 가지 전제가 있었다. 분

명한 장르 영화여야 하고,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 압도적인 스케일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그런 전제 하에 소재를 찾기 시작해 백두산 화산 폭발이라는 재난 영화의 틀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한국 영화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화산폭발이라는 소재를 담은 만큼 새로운 시도와 볼거리가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이 작품은 서울 강남역 일대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에서 처음으로 서울 도심의 잠수교를 통제해 촬영을 진행했다.

이 감독은 “재난을 체험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일상과 닿은 공간이 필요했다”면서 “극 초반에 등장하는 강남역 장면은 채 5분도 안 되는 분량이지만, 10회에 걸쳐 쪼개서 촬영해야 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재난 영화를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다”고 되짚었다. 영화는 현재 후반 작업이 진행 중이며 12월 중순에 관객을 만난다.

연습뉴스

김수미 “효림이가 며느리 된다니 실감이 안 나”

“반찬 걱정 말라” 함박웃음

배우 김수미가 서효림을 며느리로 맞게 데 대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김수미는 다음 달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대표와 서효림이 결혼하는 데 대해 “연말이고 다들 바쁘니 가족끼리 조촐하게 스몰웨딩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길에서 시민들께 국수 대접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계절이 이어서 그렇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수미는 서효림과 과거 드라마 ‘밥상 차리는 남자’에서 모녀 관계로 호흡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SBS플러스 예능 ‘밥은 먹고 다니냐?’에 함께 출연 중인 각별한 사이다.



김수미

서효림

김수미는 “신혼집은 내 집 옆, 5분 거리라며 ‘효림아, 반찬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서효림은 다음 달 22일 정 대표와 서울 모처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또 임신 초 기라는 사실도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다큐 ‘호남대 독도탐방단’ 오늘 KBS 1TV 방영

KBS 미니다큐(미니 다Q) 연출 박성용 조지호 박남용) ‘독도에서 전라도 발자취를 호남대 독도탐방단’이 20일 오후 7시 35분부터 방영된다.

호남대학교 학생들이 19세기 말 울릉도를 개척하고 ‘독도(독섬)라

는 이름을 부여한 전라도인들의 역사적

인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내용이다.

KBS 1TV ‘미니다큐’를 통해 25분간 방송되는 ‘독도에서 전라도 발자취를-호남대 독도탐방단’은 KBS광주방송총국 제작진이 지난 2일부터 4박 5일간 진행된 ‘호남대 2019독도탐방단’의 대장정을 영상으로 기록한 내용이다.

‘약무호남 시무독도(若無湖南 是無獨島) 전라도 독도에서 울릉도 독도로’를 슬로건으로 내건 호남대학교 2019독도 탐방단은 지난 2일 우리 땅 독도에 ‘독도(독섬)라



인 고흥 독도(고흥군 금산면 오천리 산 28)가 바라다 보이는 오천항(술섬)에서 발대식을 갖고 5일간의 독도 대장정에 올랐다.

프랑스, 우즈베키스탄, 중국, 베트남 등 4개국 유학생 5명 등 4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으로 구성된 호남대 탐방단은 지난 11월 5일 오전 10시 20분 독도에 입도해 4시간 여 동안 독도 일원에 대한 답사를 실시했다. 또 독도경비대에 고흥 배와 팔영산 단감, 다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경비대원들의 노고에 감사사를 표했다.

/전재재 기자 ej621@kwangju.co.kr

TV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모두 다 콩따리(재)	35 KBC 모닝 730
0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맛 좀 보실래요
09	30 KBS 뉴스	00 생생정보 스페셜(재) 40 무한리필 셀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어쩌다 발견한 하루(재)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특집 살맛 나는 오늘
11	0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55 UHD 숨터(재)	00 동백꽃 필 무렵(재)	3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헬로키티 유니버스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헬로키티 유니버스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어쩌다 발견한 하루(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테마스페셜
13	00 KBS 네트워크 특선 고교생 50 KBS 재난방송센터	2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30 헬로키티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14	00 KBS 뉴스 10 영동발달 공순이와 친구들 25 숲속 친구 스토니즈 40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농구 남중/남고부)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벅스봇 50 빠샤 메카DS	00 뉴스브리핑
15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셀러드(재)	20 모두 다 콩따리	00 kbc특별기획 나는 지역에서 살기로 했다
16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반지의 비밀일기 2 15 썬! 내 친구는 빅파이브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5 MBC 뉴스 25 차종우돌 전국 유랑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17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18	00 KBS 뉴스 7 40 미니다큐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벅블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락
19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살리는 남자들	55 어쩌다 발견한 하루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20	00 KBS 뉴스9			
21	00 시사토론 '10' 55 더 라이브	00 동백꽃 필 무렵	05 살맛나는 세상	00 시크릿 부티크
22	35 UHD 하룻밤 여행 소리랑 40 특선다큐엔터테인먼트 스티븐 스피버그의 질문 우리는 왜 중요하는가	10 썬바이벌 1+1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23	25 KBS 뉴스 35 인간극장 스페셜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35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00 EBS 정오뉴스	17:30 페파 피코(재)
07:15 꼬마버스 타요	12:15 극한직업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00 EBS 다큐프라임	19:00 스파이더맨
08:00 당동맹 유치원	13:55 EBS 초대석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띠띠뽀 띠띠뽀	14:45 물랑	20:00 머털도사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4:55 꼬마버스 타요(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중국한시기행10 황하3 - 태공의 꿈)
09:00 출동! 슈퍼왕스	15:10 로보카 폴리(재)	21:30 한국기행 (도시락 기행 3부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09:15 마사와 곰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원더볼스	15:55 출동! 슈퍼왕스(재)	22:45 극한직업
09:40 아기 동물 귀여워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3:35 EBS 초대석
10:00 지식의 기쁨	16:25 마사와 곰(재)	24:25 지식의 기쁨(재)
10:30 한국기행(재)	16:40 당동맹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0일(음 10월 24일 辛酉)

<p>36년생 일관성이 있었다면 위기를 모면케 할 것이다. 48년생 현상을 무시한다면 디딤돌을 잃게 될 것이다. 60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임했을 때 풀리겠다. 72년생 직접 만나서 다루어야 타결 될 수 있는 일이다. 84년생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96년생 의욕하고 있는 바대로 행하는 것이 길한 국세를 조성하리라. 행운의 숫자 : 10, 05</p>	<p>30년생 쇠뿔도 단 김에 빼겠다. 42년생 귀를 막고 지나야만 마음이 편한 해지리라. 54년생 확실한 절제와 과당성 있는 실행이 절실한 때이다. 66년생 예상 밖이어서 대단히 실망하는 판도이다. 78년생 확인만 잘 해도 사고를 예방한다. 90년생 안중세를 굳게 지지만 노고는 따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2, 36</p>
<p>37년생 강인한 정신과 굳센 추진력이 필요하다. 49년생 치우치던 부조화에 따른 경색 국면에 이른다. 61년생 전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73년생 계획대로 시원스럽게 뻗어나가는 하루가 될 것이니라. 85년생 분명히 장교한 후에 결정할 일이다. 97년생 전혀 예기치 않은 만남이 있을 수다. 행운의 숫자 : 31, 15</p>	<p>31년생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단순 판단을 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43년생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깊은 뜻을 깨달을 것이다. 55년생 목전의 진실을 호도하려는 이를 만날 수 있다. 67년생 전면적으로 나서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79년생 예상했던 것보다 의외로 간단히 끝나겠다. 91년생 흠여져 있는 것이 모아지리라. 행운의 숫자 : 03, 87</p>
<p>38년생 강력한 기득권의 쟁포 앞에서 휘둘릴 수 있다. 50년생 행운이 따르리라. 62년생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 74년생 허심탄회한 심경의 토로가 절실하다. 86년생 강이 바다에 이르는 듯한 대단원의 합류점이 보인다. 98년생 행형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29, 53</p>	<p>32년생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니라. 44년생 반반이 실행시키는 원인이 심심찮게 나타나는 바람에 애를 먹겠다. 56년생 순조로운 진행을 보인다. 68년생 시작 되자마자 곧 종결 되어 버리는 수가 있다. 80년생 전면적인 실행을 요하니 추진력을 높여야 할 때다. 92년생 질적인 향상을 시키지 않으면 남감해진다. 행운의 숫자 : 60, 40</p>
<p>39년생 행부의 마당에 들어서는 김복이 놓여 있다. 51년생 목표를 향해 무조건 전진해야 한다. 63년생 왈차지결하게 떠돌아 대고 있는 국세이다. 75년생 예측 가능한 범위 내로 국한하는 것이 순탄하다. 87년생 치밀하게 구상하고 철두철미하게 행하라. 99년생 귀한 이가 떠나거나 귀중품이 사라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92, 37</p>	<p>33년생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백 년 낫다. 45년생 전문가를 만나야 속 시원한 해결을 본다. 57년생 지금 진퇴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곤혹스러워질 수도 있다. 69년생 정밀하게 살펴야 파악이 가능하다. 81년생 예상 밖의 판국이니 마음을 굳게 먹어야만 한다. 93년생 결코 감정적으로 대할 일이 아니니 차분하게 대처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79, 59</p>
<p>40년생 명분에 이끌리다보면 실속이 없어지는 법이다. 52년생 상호 공생의 길을 도모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64년생 시간을 도과하면 타격이 올 수 있다. 76년생 사실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대응하라. 88년생 기대하지 않는 것이 맞다. 00년생 정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처지에 서게 된다. 행운의 숫자 : 83, 39</p>	<p>34년생 본전만 찾아도 다행이리라. 46년생 처음에는 당황하겠지만 머지않아 적응할 것이다. 58년생 움직임 보다는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낫다. 70년생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날 수도 있는 국세이다. 82년생 기회는 있지만 탐욕을 버려야 한다. 94년생 가볍게 여겨 왔던 것이 크게 비화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5, 58</p>
<p>41년생 뜻밖의 환심을 보이는 이를 경계하라. 53년생 어설피 뜨게 대하면 여러 가지 단처가 드러날 수다. 65년생 육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라. 77년생 당황한다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 89년생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01년생 그 어느 때라 하더라도 임장이 서로 뒤 바뀔 수도 있으니 자신을 잘 하라. 행운의 숫자 : 32, 22</p>	<p>35년생 일도양단할 수 있는 처신이 필요하다. 47년생 계약 전에 있어서 특별한 행운이 따르는 호기로다. 59년생 기교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클 것이다. 71년생 기존의 것을 교체하게 되는 판국이다. 83년생 상응하는 흐름에 내맡긴다면 무리 없이 성취한다. 95년생 아무리 답답해도 나서지 말고 잠자코 있는 편이 낫다. 행운의 숫자 : 24, 14</p>